여 '재보선 후폭풍' 속 새판짜기 모색

근원적 변화 요구 봇물…지도부 총사퇴

새 원내대표·비대위장 '투톱체제' 운영

4·27 재보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에 후폭풍이 거세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일단 변화를 모색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 총사퇴'는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도권 텃밭인 경기 성남분당을과 승리를 예견했던 강원에서 참패하면서 당 지도부로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벼랑 끝 상황'에 몰린 형국이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내주 중 새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까지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투톱 체제'가 꾸려지는 것이다.

한 최고위원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함께 맡으면 특정 계파가 비상체제를 주도할 수 있다"며 "균형 차원에서 원대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분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정대로 내달 2일 실시키로 했다. 나경원·정두언·서병수 최고위원 등이 비상체제의 틀을 잡은 뒤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자며 '경선 연기론'을 주장했으나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가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됐다. 회의 시작 30분 전인 오전 8시30분 대표실에서 모인 최고위원 비공개 티타임에서 최고위원들은 원내대표 경선 시기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며 사무실 안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누가 발목을 잡았나", "언제 물러나나"라는 고성이 오갔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안형환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대표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고, 티타임은 회의시간을 훌쩍 넘긴 9시20분까지 지속됐다.

50여분에 걸친 티타임을 마치고 상기된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온 안 대표는 '최고위원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발표한 뒤 5분 만에 회의를 끝냈고, 배은희 대변인은 다음달 2일 원내대표 경선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원내지휘봉을 놓고 '4파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 3선인 이병석 안경률 의원, 중립성향의 4선 황우여, 3선 이주영 의원 등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비상시기에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할 비대위원장은 주말 조율작업을 거쳐 내주 초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역할을 할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위기에 처한 당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당무에 밝은 인사가 돼야 한다는 의견부터 외부 명망가를 포함한 당 안팎의 중립 인사를 전격 발탁, 당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견해까지 다양하다.

아직까지 당 내에서 '조기 전대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어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당 쇄신 및 당정청 개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기 전대가 아닌 비대위 체제 구성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계파 간 이해관계에다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확산돼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피곤한 한나라당 지도부 한나라당 안상수대표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윤상현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재보선과 대권주자들 입지

손학규 '탄탄'·유시민 '타격'·박근혜 '주춤'

4·27 재보선 결과로 향후 대권구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번 선거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에서 국민참여당, 순천에서 민주노동당에게 통 큰 양보를 하면서 야권과 시민사회계에 큰 인물이란 이미지를 남겼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심장부인 분당을에서 단기필마로 뛰어들어 짜릿한 승리도 쟁취하면서 향후 대선에서 표의 확장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에 이은 지지율 3위의 위치가 깨지고 박근혜 대 손학규 구도가 가시화될 공산이 매우 커졌다.

반면 유 대표는 큰 타격을 받았다. 정치적 입지가 급속히 약화될 전망이다.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친노그룹의 분열을 초래한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으며 '유시민 한계론'을 또다시 보여줌으로써 대선후보로서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의 합당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 박 전 대표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재보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위를 만들어 나름 관심을 가졌다. 결과는 큰 차이의 패배로 돌아왔다. 강원도도 충청도와 비슷해졌다.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그간 대세론을 등에 업고 독주를 해왔지만 이번 재보선 후에는 대선구도가 박 전 대표와 손 대표 간 양 강 구도로 전환되고, 승부 역시 일방적이 아닌 박빙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당을 공천 과정과 원내대표 선거를 놓고 친이(친이명박) 주류 내부의 잠재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향후 친이계의 '이합집산'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박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을 놓고 친이계 내부에서 박 전 대표와의 '전략적 제휴' 또는 '선명한 경쟁구도'로 엇갈리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선 쏠리는 박근혜 행보

재보선 패배 책임 통감 속 역할 바라

한나라당의 4·27 재보선 완패로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가 또다시 관심사가 됐다. 선거의 패배로 여권 주류가 상처를 입으면서 '대안세력'인 박 전 대표에게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한 중진은 28일 "당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 박 전 대표 중심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박 전 대표가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하지만, 그동안 여권 주류와 거리를 둬온 박 전 대표가 지도부 교체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남권의 한 친박 의원은 "정치 재개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으나 다른 의원은 "섣부르게 움직이지는 않고 지금처럼 정책 행보만 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다만, 그의 뜻과 무관하게 재보선 패배로 당내 친이(친이명박계)계의 결속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것과 비례해 박 전 대표로의 힘의 쏠림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이날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 방문길에 오르기 직전 인천공항에서 이번 재보선 패배와 관련, "정당과 지역을 떠나서 진정성 없이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이번 선택은 한나라당 전체의 책임이며,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역할론'에 대한 질문에 "여태까지도 제 위치와 입장에서 노력해 왔지만 당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권 '젊은 대표론' 급부상

"환골탈태 필요성" … 원희룡·나경원·남경필 거론

한나라당 지도부가 28일 4.27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권 핵심부에서 '젊은 대표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중산층 및 중도·우파 지역인 분당을의 패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여당이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성이었던 분당을에서 민주당에 패배한 것은 한나라당이 철저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국민의 경고"라면서 "한나라당이 세대교체를 통해 젊은 대표 체제로 이행함으로써 환골탈태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보선에 앞서 일부 여권 주요 관계자들은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 젊은 대표로 당의 체질과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모들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당시 이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재보선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 여당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당·정·청의 환골탈태를 언급해 '젊은 대표론'과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민본 21' 등 한나라당 소장파들도 40대 '젊은 대표론'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어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이 이슈가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젊은 대표'로는 나경원·정두언 최고위원, 원희룡 사무총장, 남경필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장, 김태호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당선자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젊은 대표론'이 본격적인 화두로 부상하게 되면, 차기 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김무성 원내대표, 홍준표 최고위원과 세대간 대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J "미래 이끌 리더들이 黨 이끌어야"

'당권·대권 분리' 당헌·당규 개정 주장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28일 "한나라당의 미래를 이끌 리더들이 전면에 나서서 당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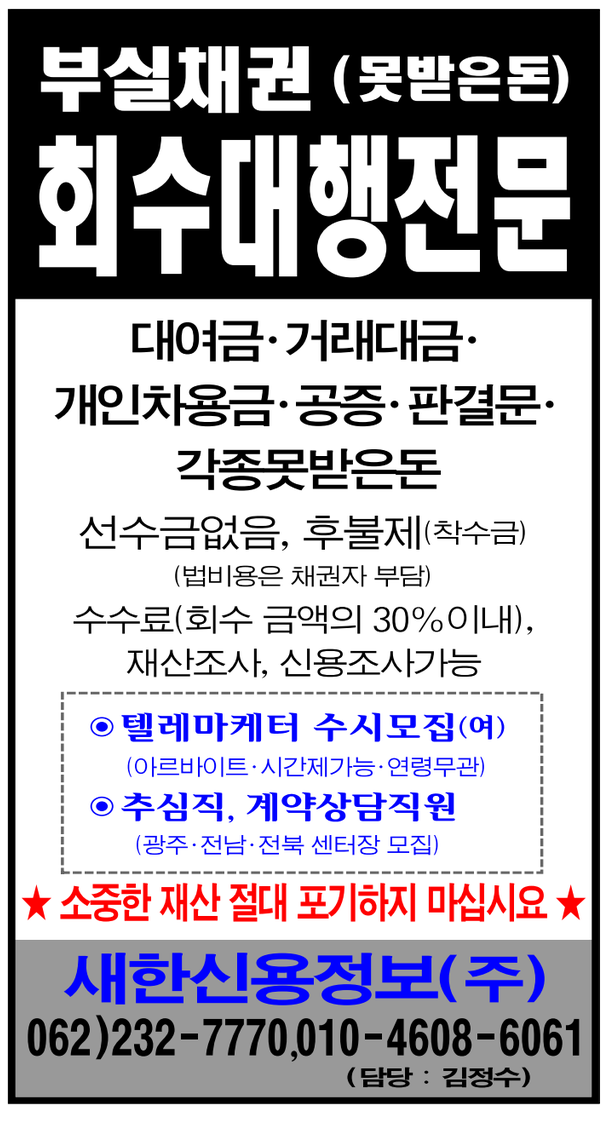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리형 지도체제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선출당직·대선주자 분리'를 규정한 당헌당규 개정을 포함해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한나라당 당헌당규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 이외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대권·당권 분리 규정으로, 지난 2005년 만들어진 당 혁신안의 핵심이다.

4·27 재보선 패배로 현 최고위원들이 총사퇴하기로 한 만큼 올해 안에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예상되지만,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예비주자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당권에 도전할 수 없다.

그러나 정 전 대표의 제안대로 대권·당권 분리 규정이 폐지되거나 완화될 경우 여권 잠룡들이 당권에 뛰어들 길이 열리게 된다. 여권 일각의 '대권주자 조기 등판론'과도 연결된다. 재보선 완패로 당·청 관계 재정립 등 쇄신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대권·당권 분리 문제가 공론화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정 전 대표는 당권에 도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생각해보겠다"면서 "다른 분들도 생각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